

	보도 반박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8.23.(월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	유 원 규 사무관 (02-2100-2992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양 진 호(02-7550-7550)		문 재 희 팀장 (02-3145-7552)

제 목 :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 조기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- 이투데이는 “금융당국, 업계에 33조 카드론 ‘DSR 조기 적용’ 의견 타진”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가계부채 잡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카드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론의 차주단위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</p>	
--	---	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